



急成長하는 印度의 컴퓨터産業

인도의 국민생활에 컴퓨터가 차분히 浸透되고 있다. 暗殺당한 母親의 뒤를 이은 아들 라디브 간디 首相이 적극적으로 Computer 支援策을 추진한 결과라 할 수 있다. Computer 浸透양상은 간디 首相의 豫상을 훨씬 능가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1. 生活의 일부가 된 Computer

라디브 간디 首相이 취임한지 1년반남짓, 이 사이에 뉴델리에서는 인도國鐵에 컴퓨터端末이 준비한 旅客안내 窓口가 만들어지고 직업소개소, 학교 등에도 잇따라 端末機가 도입됐다. 길거리에는 컴퓨터占까지 등장했다. 지금까지 시민들에게는 인연이 멀었던 컴퓨터가 갑자기 생활의 일부로 바뀌었다.

간디首相은 수상자리에 오르자마자 近代化政策에 착수, 컴퓨터에 관해서는 減稅措置, 각종 규제완화정책을 내세웠다.

그러한 정책에 힘입어 인도의 컴퓨터 생산대수는 급증했다. 컴퓨터 추진정책이 출범한 1984년의 생산대수는 겨우 1,200대(일렉트로닉스部 조사, Home Computer와 Office Computer의 합계)였으나 금년은 8,000대로, 내년에는 2만대에 달할 전망이다.

또 컴퓨터 정책의 일환으로서 지금까지 취해온 외화규제책을 완화할 것도 예정하고 있어 앞으로 수년간 컴퓨터 생산은 質量면에서 비약적으로 신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예상이상의 성과」라고 정부당국자들의 입에서 나올 정도로 인도의 컴퓨터 붐이 일고 있지

만 지금까지 은행, 항공회사, 일반기업 등 방대한 양의 서류처리를 人海戰術로 감당해온 곳이 一掃되고 있다. 많은 사람이 서류를 만들고 일일이 Sign을 하고 그리고 진출을 서는 인도의 대명사처럼 보였던 非能率은 과거지사가 되고 있다. 또 납세사무, 경제계획의 立案, 건강보험사무 등 행정실무의 모든 면에서 컴퓨터가 사용되기 시작, 정부의 행정개혁도 진행중에 있다. 한국의 입장에서 볼 때 아직도 뒤떨어져 있다고 볼 수 있겠으나 이를 반대로 未開拓의 시장으로 본다면 같은 입장에 있는 中공에 비하면 컴퓨터化의 속도는 훨씬 빠르다고 할 수 있으며 유망한 시장이라 할 수가 있다.

이를 뒷받침이라도 하듯이 최근에는 미국을 중심으로한 外資의 활동이 활발해지고 있다. 최근 Control Data社가 인도정부로부터 大型 main-frame을 受注하는데 성공했다. 프랑스의 허니웰 社와의 경쟁에서 승리하여 획득한 것으로 受注금액은 수백만弗이나 된다. 작년 레이전대 통령이 인도의 근대화 정책과 기술이전을 약속, 이후 이같은 상담이 잇따르고 있다.

2. 通信事務는 열세

그러나 컴퓨터만이 선행한다해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것도 잘 알려진 일인데 인도의 電力사정은 나쁘며 電話는 늘 不通이다. 컴퓨터 기술자의 絶對數도 부족한 실정이다. 8월에 뉴델리의 電話交換手 3,000명 이상이 파업에 들어가 電話가 완전히 중단되는 사태가 일어났다. 세디 下院議員이 自動小銃을 맨 4명의 경호원

을 대동하고 스스로도 권총을 손에 쥐고 전화국에 들어온데 화가 나서 파업한 것인데, 세디 의원도 긴급전화를 걸려고 해도 전화가 불통이 되어 화가 치밀어 전화국에 쳐들어온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 이야기는 인도의 電話사정을 잘 대변해주고 있다. 이른바 Infrastructure의 건설이 지연되고 있으며 이러한 점에서도 근대화를 서두를 필요가 있다.

또 정부가 주도하고 있기는 하나 인도에서는 전산업 분야에 규제망이 펼쳐져 있으며 또 開途國에서 볼 수 있는 官僚制도 健全하고 있다. 이는 큰 문제로서 근대화 정책이 시작됐다고 하여 당장 고쳐지는 문제가 아니다. 官僚制의 요인을 살펴보면 인도의 컴퓨터化는 상당히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볼 수도 있다. 더우기 인도는 1947년 독립후에 일관해서 國產化 정책을 추진해 왔다. 外資規制를 엄격하게 취해온 것도 그 때문이다. 自力更生政策은 精神論으로서 이해를 할 수가 있으나 資本蓄積이 낮은 곳에서는 經濟發展의 속도가 아뉘든 둔화된다. 이를 打破하기 위해 近代化政策을 추진하고 있는 것인데 인도정부내에는 自力更生派가 아직도 많다.

따라서 컴퓨터自由化政策에는 抵抗이 뒤따르고 있다. 當面 自力更生의 사고방식에 대해서는 큰 변화는 없다고 봐도 될 것이다. 美CDC의 輸出契約獲得은 오히려 예외적이며 컴퓨터 시스템의 輸入보다도 部品, 技術의 輸入에 힘을 기울일 것이며 外資를 도입하여 國產化를 추진하는 방향에 있다.

3. 各 方面에 미치는 影響은?

Mainframe은 輸入에 의존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러나 적어도 Personal Computer는 수입을 인정하지 않고 전량 國產化할 방침이다. 현재 인도에서 컴퓨터회사라 자처하고 있는 기업은 300社(!)나 된다고 한다. 수자가 많아서 놀라겠지만 實態는 家内工業에 털이 약간 생긴 정도의 기업이다. 드라이버 하나 있으면 충분하다는 정도의 기업인 것이다. 대만, 홍콩, 싱가포르 등지로부터 부품을 수입하여 組立하는 것 뿐이기 때문이다.

인도정부는 이같은 弱小企業을 규제하기 시작했다. 部品을 內製化하도록 노력하라고 하는 것이다. 이러한 기업은 정말로 드라이버 하나만으로 잘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內製化하는 힘은 없다.

이 정책은 外國企業에도 영향을 미친다. 가령 인도에 진출을 하더라도 높은 國產部品 調達率을 적용받기 때문이다. 기업으로서 주저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自動車會社 등과 마찬가지로 할 수 있다.

4. 定評있는 인도製 Soft

간디 수상의 입장에서 보면 컴퓨터化가 환영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가 문제가 되고 있다. 인도의 貿易收支는 대폭 赤字이다. 自由化해 버리면 赤字는 더욱 증가할 것이 뻔하다. 輸出擴大를 기대할 수 없는 이상 규제가 불가피하다고 생각할지 모른다. 이에 컴퓨터化에 의해 合理化가 진전되면 失業者數가 더욱 증가할 우려가 있다. 새로운 산업이 일어나고 이에 吸收된다면 좋겠으나 인도의 인구는 엄청나게 많다.

컴퓨터로 일자리를 잃게 될 노동자도 또한 많을 것이며 직업안내소의 창구가 컴퓨터化되고 지금까지 창구에 앉아 있었던 사람이 求職隊列에 나선다면 모름지기 Black Jocker라 아니할 수 없다. 노동조합의 파업이 잇달아 사회불안까지 일어날 것이다.

컴퓨터化에 따라 새로운 고용이 늘어 난다고 해도 「그것은 Elite 專用이다.」라는 비판도 있다. 컴퓨터化에 따라 貧富의 차이가 더욱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한편 인도가 이미 대량의 Software를 수출하고 있다는 事實은 그다지 알려지지 않고 있다. 더우기 연40%의 비율로 수출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 Hardware를 輸入하는 조건으로서 Soft 輸出을 의무화하는 예가 있기 때문이며 Texas Instrument등은 인도에 Soft 생산拠點을 구축해 놓고 있다. 인도製 Soft는 定評이나 있으며 미국에는 수출할 능력이 있다고 하며 IBM도 이를 도입할 것을 검토중이라고 한다. 이는 인도의 컴퓨터 업계가 크게 기대하고 있는 것이다.